

최근들어 새책 불자들을 위한 책이 속속 출간되면서 미래 불교에 대한 약간의 희망을 품게 한다.

(미래에 오는 미륵불)(문학동네), <누가 아기 석가모니로 태어났을까>(문학동네), <부처님 생애>(가오), <어린이 팔만대장경>(은하수), <오세암>(동쪽나라) 등 5권의 어린이 불서가 한꺼번에 나와 주목했던 어린이 불서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를 이끈 주체가 일반출판사란 점은 아쉽다.

어린이들에게 불교적 심성을 길러 주는 것이 어린이 불서의 한 역할일 텐데, 그러한 점은 일반출판사들로서는 주된 관심사항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교전문출판사들이 배워야 할 점도 적지 않다. 최근 출간된 어린이 불서들을 살펴보면, 장정이나 삽화 등 외형적인 면에서 눈에 띄게 달라졌음을 볼 수 있다.

특히 저학년층 대상으로 한 어린이 불서에 있어 삽화와 디자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석가모니 입멸 후 56억7천만년이 지난 뒤 이 세상에 내려온다는 미륵불을 소개하고 있는 <미래에 오



어린이 불서 5권 잇달아 출간 돋보이는 기획-알찬 내용 '눈길'

『문학동네』 등서 퍼내... 교계 출판사 뭐하나

는 미륵불),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 생애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누가 아기 석가모니로 태어났을까>는 외형만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 동안 천편일률적으로 소재로 삼았던 부처님 생애, 고승전기, 경전 등에

면서 면모를 일신했다. 특히 불교계 전문출판사들이 어린이 책 출판을 포기한 상태에서 꾸준히 어린이 불서 시장 확대와 질을 높이고자 하는 동쪽나라의 노력은 인정할 만하다.

<어린이 팔만대장경>은 기획력이 돋보이는 책이다. 부처님 말씀 가운데 교훈적이고 재미있는 이야기 20가지를 골라 동화로 엮은 이 책은

『알아 두어요』라는 코너를 마련 어린이들이 사교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다. 좁은 시장만을 탓하며 당장 팔릴 책에만 매달리는 불교전문출판계에서는 이러한 기획이 어린이 불서 발전의 디딤돌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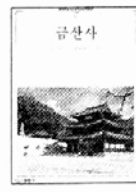
어린이 불서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어린이 불자들에게 올바른 불교관을 심어줄 수 있는 내용의 알차기다. 그런데 어린이 불서에 대한 비평이 없는 상태에서 내용이 충실한 지 아닌지 가려내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어린이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호기심이나 관심사항 그리고 그들의 인지력에 부합하는 가 하는 측면을 신중히 고려한다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간혹 몇몇 불교전문 출판사들이 어린이 불서를 내놓지만 실재하는 경우도 이러한 인식이 부족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맹점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불교계 출판사들도 하루빨리 기획과 편집면에서 분야별로 전문성을 갖춘 출판체제를 도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종근 기자
(gamja@buddhapia.com)

새로운 책



▲금산사(글/김남윤·이은옥·소재구, 사진/소재구)= '빛깔있는 책들' 시리즈 사할권 13번째, 금산사의 역사를 시작으로 건축, 유적과 유물, 그리고 금산사 가는 길까지 상세히 다루고 있다. 여기에 단풍으로 곱게 단장한 금산사 풍경과 함박눈 속의 미륵전 등 사계절의 풍광을 담은 사진은 직접 산사에 간 듯한 느낌을 불러일으킨다. 금산사 참배 길에 이 책을 길잡이로 또는 도반으로 삼는다면 기쁨은 두 배가 될 것 같다. 값 4천8백원.



▲마음의 발을 가는 농부(해공 스님 지음, 은향문학사)= 불자는 마음의 발을 가는 농부다. 참다운 인생을 위해서는 불법에 귀의, 지혜를 닦아야 한다는 것이 이 법문집의 요지. 글쓴이는 마음의 발을 가는 농부의 유형을 하나의 제시하며 고(苦)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 말한다. 농부의 유형은 공덕의 씨앗을 뿌릴 줄 아는 농부, 뿌린 씨앗을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진실하게 가꿀 줄 농부 등 네 가지이다. 값 8천5백원.



▲반역의 우주(무묘양에오 지음, 손상에 옮김, 모색)= 21세기 구도자의 출발점. 큰 깨달음과 해탈의 차이, 석가에 대한 근본적 비판 등 글쓴이 특유의 명상 패러다임이 전개되는 에이오즘 소개서. 21세기 이후 인류가 직면하게 될 새로운 정신세계의 가능성을 조망한다. 왜 끊임없이 신종종교가 번성하는 것일까요 등 기존 불교의 문제점 및 신종종교의 위험성을 비판, 미래 종교의 전망을 제시한다. 값 1만원.



▲에이츠에서 히나까지(이창배 지음, 동국대 출판부)= 이창배 정점 일곱 번째 권으로 <20세기 영미시의 형성> 증보판, <20세기 영미시의 전개>, <에이츠의 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엘리트-소외와 고립의 시>, <윌리스 스티븐즈의 시와 사랑>, <히나시의 리얼리즘의 전개> 등 5편의 논문을 새롭게 수록했다. 지난 95년 노벨문학상을 수상, 영미시단의 거장으로 떠오른 셰익스피어 히나의 시를 집중 분석한 논문도 실려 있다. 값 1만5천원.



▲만일 부처가 직업을 선택한다면(마이를 통스·저스틴 윌리스 통스 지음, 윤규상 옮김, 도솔)= '만일 부처가...' 시리즈 두번째 권이다.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붓고 열정을 바칠 가치가 있는 진정한 일을 찾아 진정한 삶을 누리고 진정한 부를 쌓을 수 있는 길에 대한 안내서. 하고 싶은, 할의려, 위기, 돈 등 10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나만 할 수 있는 일', '성공의 원칙', '변화와 도전을 이겨내는 힘', '돈의 본질' 등 80여 개의 작은 주제를 다루고 있다. 값 7천9백원.

◇금주의 베스트북서 10

책방 역시이온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범구경(작은경전1)	지 현	민족사
2	만행-히버드에서 화제까지	현 각	열림원
3	선방일기	지 허	여시아문
4	마하르쉬의 복음	대 성	탈구사
5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림
6	불교입문	조계종 출판부	조계종 출판부
7	영가전도	우 통	효림
8	위빠사나 성자 아란 문	김 열 권	불광
9	말교학개론	홍 석	문주사
10	지대방 이야기	송광사 정월	법공양

도서 안내: (02)737-0695

『정진이 최상의 설법』

명정스님 '그대 산목련 향기를...'

통도사 극락선원 주지 명정 스님의 수필집 <그대 산목련 향기를 듣는가>(좋은날)는 '화두란 설명해서도 설명할 수도 없는 것'으로 시작된다.

글쓴이가 은사 경봉 스님의 법문이 담긴 테이프를 10시간 동안 녹취하여 책으로 엮은 일, 일본 조동종의 구택대학에서 <선학대사전>을 해설한 일 등 스님의 경험 속에 선의 본질을 녹여 놓은 이 책은, 선에 대한 소양이 전혀 없는 독자들에게도 재미있게 읽힐 정도로 강한 흡인력을 지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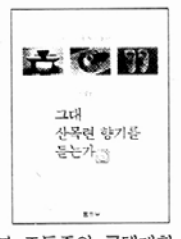
선방에서 정진하고 있는 선승들이든 재가 불자들, 부처님이 설하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최대의 목표가 '깨침'이다. 그렇기에 깨달음을 향한 옛 선사들의 수행 일화는 언제나 신선하게 다가온다.

거꾸로 서서 입작한 등은봉 스님, 관을 메고 열반에 들겠다는 보화존자 등 열반에 관한 선승들의 이야기는 그 자체만으로도 흥미롭다. 하지만 이 책의 진정한 묘미는 생활 속에 진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데 있다.

옛 선사들은 '무엇이 깨달음입니까' 하고 제법 비장한 어조로 묻는 이에게도 "차나 향잔 마시게", "떡 먹어라", "밥 먹어라" 등으로 엉뚱한 답변을 했는데, 이는 진리가 자기 안에 있음을 가르쳐 준 수승한 법문이다. 이것이 참선의 가장 요긴한 관문이라는 게 글쓴이의 설명이다.

선의 어록과 법문, 그리고 선문답은 아무리 훌륭해도 참고사항에 불과하다. 정진하는 자체가 최상의 설법이며 선문답이다. 값 7천5백원.

김종근 기자



당취는 누구이며 무슨 일 했나

이재운 소설 '당취' 1·2권

임진왜란 당시 승병조직의 배후가 된 비밀결사 '당취(黨聚)'의 활약상과 임진왜란에 얽힌 이야기를 그린 이재운 장편소설 <당취 1·2>(명상)가 나왔다.

승유역불을 통치이념으로 내세운 조선에서 불교는 권위와 전통을 상실하면서 사대부에 의해 탄압을 받는다. 일부 유생들은 승려를 잡아다가 노비로 삼거나 비구니를 겁탈하는 등 체불행위가 극에 달한다. 이때 등장한 것이 '당취'이다. 전국에 걸쳐 조직된 이 단체는 삼보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응징하거나, 휴정과 유정 스님의 지휘하에 환난에 빠진 조선과 증성을 구하기 위해 일어선다. 임진왜란에도 승군으로 참여해



큰 활약을 한다.

이 소설은 이러한 당취들의 울분과 활약을 흥미진진한 구성과 박진감 넘치는 문체로 펼쳐낸다. 그러면서 왕조 창업의 이상을 잃어버린 채 당쟁과 향락으로 얼룩진 조선 중기 사회의 모순과 민초들의 고통을 치열하게 표현한 역사소설로도 읽힌다.

글쓴이는 작품 전반을 통해, 당취란 과연 어떤 의미의 존재들이었으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진정한 당취들이 있는가를 묻고 있다. 값 3천7천5백원.

김종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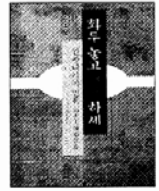
중 인광스님 염불법문집

'화두 놓고 염불하세'

염불수행으로 교화에 헌신한 근세 중국의 고승 인광 스님(1861~1940)의 염불 법문집 <화두 놓고 염불하세>(불광)가 우리말로 출간됐다.

스님은 평생 재가 신도들에게 편지로 설법하여 수많은 중생을 교화한 것으로 이름났다. 그리고 스님은 자신을 낮추어 '죽과 밥만 축내는 중', '항상 부끄러운 중'이라며 평생 수행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고 한다.

이 책은 수행에 대한 불자들의 질문에 답변한



설법과 편지를, 그리고 잡지에 기고한 글 가운데 염불수행의 핵심만을 간추려 엮은 것이다. 염불수행의 요체와 실천행을 강조한 이 책은, '마음 닦고 염불하는 수행의 요령' 등 모두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읽는다고 보다는 듣는 느낌이 강해, 책에 빠져들다 보면 자연스럽게 염불수행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는 점이다.

화두선 일변도의 우리 나라 불교에서 염불수행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해 줄 것으로 보인다. 값 1만2천원.

김종근 기자

'나' 비우고 '남' 담는 지혜

영화 '컵' 단행본으로

티베트어로 만들어진 최초의 장편영화 '컵(CUP)'이 어른을 위한 동화 <컵(CUP)>(문경새재)으로 출간돼 눈길을 끌고 있다. 98년 프랑스 월드컵 당시 히말라야의 한 사원에서 벌어진 실제 이야기가 이 책의 기동줄거리이다.

호나우도 선수와 특별한 동질감을 느끼는 꼬마 수도승 오기엔은 월드컵 결승전 중계를 보기 위해 조용한 수도원을 발각 뒤집으며 한바탕 소란을 피운다.

탈레비전을 빌리는 외종에 돈이 모자라, 신참 동자승이 가장 아끼는 엄마의 시계까지 빼앗다 시피 해서 목적을 달성하고자 마는 오기엔. 하지만 지상 최대의 소원이던 월드컵 결승전을 보게 되는 순간, 그의 욕심은 죄책감으로 돌변해 마음을 괴롭힌다.

아이들의 소란을 나무라지 않고 스스로 가라앉길 기다리고 있던 사원의 제일 큰 스승 아보트 스님이 동승들에게 그리고 독자들을 향해 묻는다. "이 세상에는 나의 마음을 괴롭히는 적이 수없이 많이 존재한다.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 많은 적을 다 없앨 수 있겠는가." 그 답은 바로 우리 마음 속에 있고, 이 책 속에 있다.

모두 5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사실 축구 애기도 월드컵 애기도 아니다. '나'로 가득 찬 마음을 비우고, 그 속에 '남'을 담으려는 자비의 가르침이 이 책의 메시지라 할 수 있겠다. 값 6천5백원.

김종근 기자



우주는 무엇이며 나는 누구인가?

그 해답을 찾아 떠나는 명상 여행

신간

The Royal Song of Saraha

그대 가슴속의 꽃을 피워라 I·II

오소 라즈니쉬 강의 이경옥 옮김 전2권 각권 값 10,000원

India My Love

내 사랑 인디아

오소 라즈니쉬 강의 손인규 옮김 값 8,000원

Tantra Vision

탄트라 秘典 I·II·III·IV

오소 라즈니쉬 강의 이연화 옮김 전4권 각권 값 10,000원

명상은 삶속에 존재한다. 그대가 누구이건 그냥 존재하라. 삶이 그대를 통하여 흐르게 하라!

왕을 위한 사하라의 노래, 이 40편의 노래들이 그대 가슴에 40송이 꽃으로 피어나길 희망한다. 그대를 꽃 피울 가장 위대한 가치는 자연스러움이다. 이것이 진리의 깨달음이며, 탄트라의 메시지다!

빛나는 우화들은 크나큰 기쁨을 안겨 준다. 이 책을 천천히 읽어라. 사랑으로!

인도는 우리의 내밀한 공간이다. 마르지 않는 지혜의 샘물, 오소 라즈니쉬가 보내온 초대장, 우리는 인도로 들어가 인도와 하나가 되고, 숨어 있는 꽃과 같은 스승을 만난다!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역사상 가장 오래된 112가지 수행법!

이 책의 원전은 (비그야나 바이라바 탄트라)로, 옛 선사들의 지혜, 성인들의 삶을 통해 얻어진 명상 방법들로 이루어져 있다. 오천 년전 시바가 그의 연인 데비에게 전수한 것이다.

21세기를 사는 지혜의 서

01. 탄트라 秘典 I	05. 범구경 I	09. 탄트라 대담의 깨달음	13. 그대 가슴속의 꽃을 피워라 I	17. 오직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을 뿐! 조주	21. 내 사랑 인디아
02. 탄트라 秘典 II	06. 범구경 II	10. 김유도	14. 그대 가슴속의 꽃을 피워라 II	18. 텅 빈 가슴을 넘어서! 남전	22. 소중한 비밀! 캐비로 강론
03. 탄트라 秘典 III	07. 금강경	11. 신심만	15. 釋, 빈 거울에 담긴 노래! 마조	19. 법의 연꽃! 이규	23. 명상, 처음이자 마지막 자유
04. 탄트라 秘典 IV	08. 반야심경	12. 화안 연꽃(대사) 장편	16. 마음을 버려라! 임제	20. 釋의 최고봉! 백경과 대주	24. 사랑의 붓다! 헤라클레이토스 강론

* 책의 내용은 출판권과 무관합니다.
* 책 제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mail: taetipub@chollian.net
tel. 927-2831-4 fax. 924-3236

레인보우 파사 리얼